안철수 대표 서울 노원병 출마 선언

"더 힘차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다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8일 "포기할 일이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더 힘차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노원병 지역구 총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들이 저에게) 정치를 배우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치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틴 루터킹의 '날지 못하면 뛰어라. 뛸 수 없다면 걸어라. 걸을 수 없다면 기어라.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움직여라'라는 말을 언급하며 "저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는데, 꾸준히 노력한다면 산도 바다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이라며 "우공이산의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 길에 한번 더 동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안철수 얼굴이 예전같지 않아', '이제 정치인 같아', '늙은 것 같아'라고 걱정해준다"며 "해맑게 웃던 옛날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솔직히 정치가 쉽지많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평소 도통 말이 없는 아내가 '괜찮다. 손가락질을 받아도, 호사가들의 안주거리가 돼도, 언론의 조롱거리가 돼도, 여의도의 아웃사이더가 돼도, 소위 정치9단의 비웃음거리가 돼도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며 "정치권의 낡은 관행, 관성 앞에서 지난 3년 반은 짧았고 저는 부족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여러분이 보내준 기대와 희망을 아직 현실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가 꿈꾸는 상계동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허황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을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진짜 변화를 만드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내 아이들이 미래를 마음껏 기를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 골목처럼 아랫집 윗집 구분없이 함께 웃고 울고,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룬 과거를 내 아이가 다시 경험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하는 일이 또 있다"며 "아들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아버지가 딸의 일자리를 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존엄과 예의가 금수저, 흙수저, 수저 색갈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며 "내 딸과 아들이 강추위 속에서 소녀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계동에서 태어난 내 아이와 저 멀리 평양 시내 어디에선가 태어난 아이가 서로 저주와 총부리가 아닌 책과 축구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한다"며 "변화는 가능하다. 여러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꿈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의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며, 이런 희망과 꿈은 정치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정치는 상상하고 꿈꾸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 직후 노원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 상계동의 한 유치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보육과 출산, 의료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민간에서 떠넘기는 것"이라며 "보육대란도 국가에서 공공 체계를 만들어 놓고 민간에 떠넘긴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보육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본다면 절감하겠다는 생각을 안 할 텐데 반대로 비용으로 본다"며 "현재 보육대란의 근본에는 국가의 보육철학 부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노인빈곤율과 청년 일자리 문제, 결혼·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결국 문제는 재원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세금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는 건지 조목조목 세세하게 투명하게 밝히고 신뢰를 쌓아야 그나마 있는 재원으로 전 세대에 걸쳐 힘든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주기자

천정배 대표, 안철수 선거연대 부정적인 입장 아니다 '주장'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8일 "지도부의 생각을 너무 단정적으로 못박지 말라"며 안철수 공동대표 또한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대와 관련해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 연대가 안된다고 말했느냐"고 반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야권통합과 선거연대 모두 없다고 주장해온 안 대표에 대한 '압박'이자, 연대를 촉구하는 야권의 여론을 안 대표가 등질 수는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안 대표가 새누리당의 압승을 방치하려고 (선거연대를 반대)한 것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말 아니겠느냐"며 "새누리당 과반수 저지가 1차 목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 계파갈등의 골 깊어져

안철수계-도당지도부 힘겨루기 팽팽

4.13 총선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당 전북도당의 계파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 영입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계와 김관영 의원등 지도부에 대한 갈등이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는 것.

게다가 반발 성명서를 내면서 일부 당원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올려 삭제를 요청하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다.

지난 7일 국민의당 창당 정신을 지키려는 당원일동은 국민의당은 새정치 깃발을 올려야 한다면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전북도당의 비정상적 비선 조직의 당운영은 선거국면을 공적하게 이끌어 갈수 없다. 공식적인 당 운영위원회와 고문단 그리고 위원회 중심으로 당 운영의 구조를 바꾸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모 인사 영입'을 두고 도당 위원장은 도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결단을 촉구했다.

일단 이번 성명서가 표면적으로는 창당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복잡 미묘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안철수계 전북인사들과 김관영 의원 등 도당 지도부에 대한 힘겨루기가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성명서에 거론된 인물들 강승규, 박진만, 정봉희 이희경 등 네트워크 내일과 안심포럼 등 안철수계 전북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도당 지도부의 페이스대로 흘러갈 경우 정치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계파간 갈등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번 성명서는 안철수계 당원들이 도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에 맞서는 식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감정의 골은 더욱 깊게 패일 것으로 전망되고 불만과 반발도 갈수록 거세질 듯하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4.13 총선 RUN · RUN · RUN

김광수 예비후보, "청년층 투표 권리 행사를"

김광수 예비후보는 8일 청년 일자리 복지 문제 등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청년 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젊은층들이 선거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보니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 속성상 투표하지 않는 청년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권리 위에 잠 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빗대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투표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며 "청년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려는 노력이 우선 투표를 통해 표출돼야 한다. 청년들도 일정부분 정치권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강동호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최성열 목사 선임

강동호 국민의당 예비후보(전주갑) 후원회장에 최성열 목사가 선임됐다.

강 예비후보는 8일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최 목사님께서 후원회장을 선뜻 수락해 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면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해 민생문제 해결과 전북의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라는 채찍질로 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재직시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이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전주 영광교회 전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 목사는 "강 후보는 새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의당의 정강정책과도 가장 잘 부합되는 인물로서 전주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천상덕 예비후보, 노인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방문

전주갑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천상덕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주최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에 방문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큰 절을 올리고 있다.

천 예비후보는 "도시가 낙후되어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를 걱정하는 시대"라며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형기자

이관승 예비후보,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국민의당 이관승 예비후보(전주갑)는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확대, 임대차 보장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연장,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동네 상권 살리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자영업자들은 소득은 줄어들고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로 황폐화된 동네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 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창업한 자영업자의 40%가 1년 만에 문을 닫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동네 상권이 살아나야 지역의 활력도 생기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고 "전주코아백화점을 경영했던 경험을 살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김호서 예비후보, "구도심 적근 개발해야 강조"

국민의당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는 "상권붕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천년 전주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는 외곽개발을 중단하고 전주시의 축인 구도심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시가 지난 16일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가운데 일부 지역을 사업대상에서 해제하면서 남은 지역도 지속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은 전주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시 외곽지역의 개발은 이미 임계점에 달해 더 이상의 외곽개발은 녹지와 우량농지 훼손으로 이어질수 있다. 특히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침해하고 구도심의 상권붕괴 뿐만 아니라 개발지 인근상권의 붕괴마저 가져올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들어가면 지방 도심의 현실에 맞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성에 비중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광영기자

정동영 예비후보, "유통시장 자생조직 절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익산시지부 교육관에서 마련된 '지역순환경제로 전북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정책 간담회에서 "스위스는 인구 8백여만명 중 2백여만명이 지역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에 가입, 유통업체를 아우르고 있다"며 "유통시장의 장악하는 지역 자생조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완주 로컬푸드는 지역 자생조직의 좋은 본보기로서 동네에서 기른 식재료를 시민들이 쓰고 활용, 소비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경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인접된 자치단체간 연계구축으로 산맥을 형성해 밀고 당기면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협동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을 예를들고 "1천만명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그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넘어 인접 지역까지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간 연계구축으로 상호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양현섭 예비후보 정동영 전 의원 비판

양현섭 후보는 "정동영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또 다시 전북도민을 현란한 말잔치로 우롱하면서 4.13총선 판을 흐려놓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정 전 의원은 자신이 전북정치 팀장을 맡아 변방의 전북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놓겠다면서 신밀라노 프로젝트를 운운한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 후보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15, 16대 국회의원에 전국최다득표율로 당선되었을 때 전북은 새정치민주연합,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판쓸이였다. 그때 이후부터 정 전 의원은 전북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때는 자신과 소속을 같이 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택시 블랙박스 예산 확보"

새누리당 정운천(전주 을) 예비후보는 8일 전주개인택시 조합장선거 현장을 방문 택시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연료비가 운송수입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인택시에 비해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고 있다. 또 개인택시 업계는 차량의 고급화, 차량관리 철저, 운행거리 감소등으로 차령제도(값싼 노후 차량에 대해 압류를 말소시켜 주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복합할증제에 대해 정운천 후보는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지역이 60%수준의 복합할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교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곽인희 예비후보, 세계잼버리 부안유치 총력

국민의당 곽인희(김제·부안) 예비후보는 8일 오는 2023년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부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후보는 "대회를 유치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과 새만금 철도 연장,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 및 남북 2축 도로 등 새만금 관련 인프라 시설의 조기 완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행 사업인 만큼 부안군과 전북도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 부안 새만금 인프라 시설 구축 등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후보는 "세계 163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잼버리대회에는 국가 원수급만 수십명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대회장 주변 인프라 시설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종회 예비후보, "논농업 직불금 차등 지급"

국민의당 김종회 예비후보(김제, 부안선거구)는 8일 논농업 변동 직불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 김제, 부안과 같이 산지 쌀값이 전국 평균 시세에 못 미치는 지역은 차액이 큰 만큼 더 보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예비후보는 "현행 변동직불금의 경우 목표가격(2013-17년, 188,000원)과 전국 평균 시세 차액의 85%를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 시세보다 산지가가 낮은 지역의 농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 김제, 부안의 경우 낮은 산지 쌀값 때문에 지역 농가가 평균적으로 2.1ha를 경작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300만원을 손해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직불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불금을 지역별로 산출하여 가격 하락율이 큰 곳의 농민들도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원종 예비후보, "지리산·화문산 힐링허브 구축

국민의당 김원종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8일 '지리산-회문산 벨트간 힐링테라피 복합단지 개발'과 관련 일본 전문가를 초빙해 남원 순창지역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세가미 박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험으로만 알던 숲의 건강증진효과를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지리산과 회문산의 숲 치유조건은 물론 산림문화·휴양·레저 등 특색있는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훌륭하고 좋다"고 극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원종 예비후보는 "남원에 지리산-회문산 힐링허브를 구축하고, 지리산 일원의 지자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리산힐링메버십'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도권의 관광수요를 지리산으로 유인하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민형기자